



전남도교통연수원, '착한일터' 가입 현판식

전남도교통연수원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지난 2일 연수원 본관 현관에서 '착한일터' 가입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

'착한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 캠페인의 하나로, 기관 임직원이 기금을 정기적으로 모금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일직역을 공제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남도교통연수원은 구성원들이 '착한일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남순천의료원, 한국수력원자력, 우정사업정보센터, NH농협 등 전남 60여 기업·단체, 1만여 직원이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힘을 보태고 있다. 이병희 전남도교통연수원장은 지난해 5월 전남도내 출자·출연기관 대표 1호로 나눔 리더(개인 기부자가 연내 100만 원 이상을 기부·약정하기로 한 모금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가 소외계층을 향한 기부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119안심콜' 등록 캠페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병원 1층 로비에서 응급환자 신속 회송을 위한 '119안심콜 서비스 대리등록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

'119안심콜 서비스'는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안심콜 대상자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파악해 환자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이 가능한 서비스다.

공공보건의로 협력체계 구축사업 일환으로 펼쳐진 이번 캠페인에는 강호철 진료부원장, 박원주 공공보건의로사업실장, 이애경 간호부장을 비롯해 공공보건의로사업팀 직원들이 참여했다. 또 전남 소방본부와 화순소방서 관계자 20명도 함께 했다.

캠페인은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을 대상으로 등록 방법 등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고 대리등록 방법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은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 등이 대리등록 할 수 있다. 노병하 기자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긴급구호품 전달

장마철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긴급구호품 720세트를 제작하고, 차수막 300개를 광주 5개 구청 등에 전달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사진)

대한적십자사는 집중호우 등의 재난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평소 긴급구호 세트를 제작해 비축해 놓고 있다. 긴급구호품은 담요, 운동복, 일용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차수막 300개를 광주환경공단 후원으로 준비해 광주 5개 구에 각 50개씩 전달했고 나머지 50개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재난대응봉사회를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허정 회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광주전남지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광주미술관회, 문화소외아동 전시 티켓 전달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광주미술관회와 함께 문화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광주시립미술관 전시관람 티켓 전달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사진)

전달식에는 김은영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 본부장, 김영희 광주미술관회 이사장, 김향림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티켓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오는 8월15일까지 열리는 "2024 여름특별전 우주의 언어-수 X 한국미술명작" 관람 티켓으로 그룹홈 및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 4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영희 이사장은 "우주의 언어-수, 한국 미술명작 관람을 통해 문화예술함양 및 학습적 의미가 높은 체험으로 방학 기간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초록우산과 함께 아이들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찬 기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량강화 워크숍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4~25일 광주라마다 호텔에서 호남제주 1인창조·중장년 센터 입주(졸업)기업 및 우수 아이템 보유기업(IR 발표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성공리에 개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사진)

이번 워크숍은 지역 내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들의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금 확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호남·제주 권역의 총 11개 센터에서 총 92명이 참석했다.

이인용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도 타 창업 유관 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1인 및 중장년 입주기업의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며 "권역 내 창업 인프라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창업 기업들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적십자사회 함평지구협의회, 의류 기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대한적십자사회 함평지구협의회가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열린 제15회 함평전지 배드민턴 대회에서 의류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

대회 참가자, 함평군 적십자 회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해 총 20박스(약 1톤) 분량의 의류가 접수됐다.

기부된 의류는 필리핀 마닐라의 난민촌에 전달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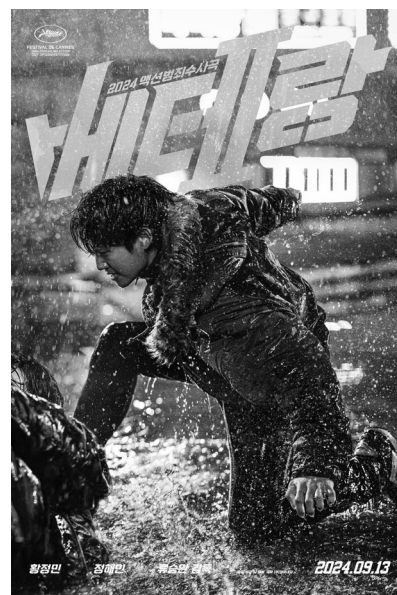
이은창 대한적십자사회 함평지구협의회 회장은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겐 유용할 수 있다"며 "환경보호와 나눔을 동시에 실천한 의류 기부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박찬 기자

추석에 만나자 '베테랑2' 9월13일에 본다

영화 '베테랑2'가 오는 9월13일 관객을 만난다. CJ ENM은 3일 이렇게 밝히며 새 포스터를 공개했다.(사진)

이 작품은 2015년에 1340만명을 불러 모은 '베테랑' 후속작이다. 서도철 형사가 이끄는 강력범죄수사대에 막내 박선우 형사가 합류하고, 이들이 연쇄 살인범을 쫓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전작에 이어 배우 황정민이 서도철을 맡았고, 정해인이 박선우로 새롭게 합류했다. 1편에 나온 오대환·장운주·진경 등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지난 5월에 열린 한국국제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했던 '베테랑2'는 류승완 감독이 다시 한번 연출한다. 뉴시스



장원영, 금발 변신... 바비인형 미모 뽐내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사진)이 놀라운 비주얼을 뽐냈다.

장원영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별다른 말 없이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금발 머리를 한 장원영은 턱을 끈 채로 카메라를 바라봤다. 장원영은 뚜렷한 이목구비를 자랑했다.

한편 장원영이 속한 아이브는 지난달 28일 신곡 '서머 페스타(SUMMER FESTA)'를 발표했다. '2024 펍시 캠페인' 파트너인 아이브가 펍시와 협업한 곡이다. 모던한 느낌의 보컬에 핑키한 기타와 그루브한 베이스 사운드가 어우러지는 디스코 팝 장르다.

아이브는 첫 번째 월드투어 '쇼 왓 아이 해브'(SHOW WHAT I HAVE)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을



시작으로 아시아·미주·유럽·남미·호주 등 19개국 27개 도시를 순회 중이다. 오는 8월에는 서울 양근크 공연을 연다. 9월에는 일본 도쿄돔에 입장한다. 뉴시스



에스파, 日서도 '나답게'... 켄지와 손 잡고 '핫 메스'

초신성 걸그룹 '에스파(aespa·사진)'가 활동 반경을 본격적으로 일본으로도 넓힌다.

3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스파는 이날 0시 세계 음원 플랫폼에 일본 데뷔 싱글 '핫 메스(Hot Mess)'를 공개했다.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하는 타이틀곡 '핫 메스(Hot Mess)'를 비롯 수록곡 '줌 줌(Zoom Zoom)', '선 앤 문(Sun and Moon)' 등 현지 오리지널 곡 총 3곡을 선보인다.

'핫 메스'는 색소폰의 시그니처 사운드와 거친 랩이 인상적인 댄스곡이다. '나는 나답게 살아간다'는 주제적인 메시지를 담은 가사를 통해 에스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한다.

특히 최근 음원차트를 휩쓴 에스파의 정규 1집 '아마켓돈' 타이틀곡 '슈퍼노바'를 만든 작곡가 겸 프로듀서 켄지(KENZIE·김연정) 등이 작곡했다. 작사는 SM 일본 곡들을 다수 작업한 H.도요사키(Toyosaki)가 맡았다. 뉴시스

'줌줌'은 지난해 10월 일본 TV 도쿄 계열 6국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 '베이블레이드 엑스(BEYBLADE X)'의 엔딩 테마곡이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테마로 한 애니메이션의 세계관을 그렸다. '선 앤 문'은 감미롭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R&B다.

에스파는 지난달 말 서울에서 출발한 두 번째 월드투어를 일본에서 이어간다. 6일 후쿠오카 마린 메세 후쿠오카 A관을 시작으로 4개 도시에서 아레나 투어 '2024 에스파 라이브 투어-싱크: 패러렐 라인-인 재팬'을 연다. 이 투어는 일찌감치 매진됐다. 8월17~18일 도쿄돔에서 2회 공연을 추가했는데, 역시 매진됐다.

앞서 에스파가 지난해 4개 도시에서 10회 규모로 연 첫 번째 일본 아레나 투어 역시 매진됐다. 당시 해외 가수 사상 데뷔 이후 최단기간으로 도쿄돔에 입성해 양일 시야제한석까지 모두 팔아치웠다. 뉴시스